

한국 전통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적용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김 숙 현 · 김 혜 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수로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 약

패션산업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움직임이 최근 더욱 활발해지며 패션업계의 환경적 책임과 행동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 의류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도 상당하여 이를 현저히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실현 방안으로서 한국 전통 끈 보자기를 표현 모티프로 선정하여 그 조형미를 분석하고 디자인에 적용하여 고유의 독특한 멋을 표현할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실현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끈 보자기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 포용성, 고정성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분석한 결과 중첩의 미, 가변적 미, 색채의 미, 선과 면의 미로 도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끈 보자기를 적용한 결과, 사각형 형태와 끈을 활용하는 유스업 패턴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폐기물을 현저히 줄이고 기존의 제작방식을 간소화하는 친환경적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보자기의 형태와 구조를 적용하여 패턴을 구성하고 끈을 활용했을 때, 단순한 의상의 형태에 서링, 드레이프 등의 장식적 요소가 부가되어 인체의 곡선적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었다. 다섯째, 끈 보자기의 고정성에 기반하여 끈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묶는 방식을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가변적 미가 창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작품 제작 과정에서 묶는 방식에 따라 카디건에서 드레스 등으로 아이템이 전환되며, 실루엣, 디테일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걸감과 안감 또는 끈에 색채 특성을 적용한 결과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등 색채의 미가 강조되고 리버시블 디자인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끈을 의상에 적용했을 때 다양한 선적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고 이동을 통해 면을 중첩해 중첩의 미와 함께 새로운 선과 면의 조형미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여기고 낭비 없는 문화를 실천했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문화 유산에서 지혜와 미적 가치를 찾는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제로 웨이스트 패션, 보자기, 지속가능한 디자인, 한국 전통미

*교신저자: 김혜연, hykim@ewha.ac.kr

접수일: 2020년 8월 24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0일

I.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 모든 분야에 환경을 고려하는 ‘필(必)환경시대’가 된 것이다. 패션 분야는 탄소 배출량과 해양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산업이며,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의류 생산량은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Villemain, 2019). 이에 대한 실천적 노력으로 유럽에서는 유럽의류행동계획(European Clothing Action Plan)을 통해 패션업계와 소비자, 지방 자치 단체에 이르는 총체적 지속가능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19년 8월에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샤넬(Chanel), 구찌(Gucci) 등의 해외 유명 브랜드와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등의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앤엠(H&M)과 자라(ZARA) 등의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업체까지 약 150여 개의 의류 브랜드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패션 협약(The Fashion Pact)’을 체결하기도 하였다(Butler, 2019). 지난해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와 비즈니스 오브 패션(Business of Fashion)이 발표한 ‘The State of Fashion 2020’ 보고서에서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패션산업의 주요 의제이자 미래 성장 동력 핵심으로 꼽히며 패션업계가 환경적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높아진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규제 준수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Amed & Berg, 2019).

이러한 지속가능한 실천 중 제로 웨이스트 패션(zero waste fashion)은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되며 소재, 디자인, 패턴, 제작방법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된 폐섬유류는 하루 평균 약 224t에 달하며 이는 연간 약 8만 2000t 규모(Cha, 2019)로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방법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실현 방안으로 한국 전통 끈 보자기의 친환경적 면모와 조형미를 주목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독특한 멋을 지닌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에 깃들인 지혜와 미적 가치에서 찾는 행보로서 의의가 있다 여긴다.

우리 전통 보자기와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에 관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자기의 경우, 보자기의 색채와 문양, 기법에 관한 연구(Chung, 2007; Kim, 1998; Noh, 2006)나 보자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Kim, 2012), 조각보를 응용한 현대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Cho & Kim, 2000; Suh, 2017) 등이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디자인 특성이나 방법을 분석하거나(Chung & Park, 2015; Kook & Kim, 2016) 종이접기, 커팅 방법 등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통한 디자인 개발 연구(Kim & Kim, 2018; Lee, 2017) 등이 있으나 제로 웨이스트를 구현함에 있어 전통문화에서 친환경적 단서를 발견하여 디자인 과정에 반영한 사례는 드물었다. 최근에는 여성복에 집중되던 디자인 연구의 범위가 남성복이나 가방에까지 확장되며 다양해지는 흐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중 폐기물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기획, 제작, 폐기 후 재사용 과정을 포함한다. 보자기는 우리나라 전통 보자기 중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 끈이 달린 끈 보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투리 원단으로 제작한 조각보는 제외하되 패션디자인의 사례조사에서는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어 포함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전문서적 및 학위논문, 학술 연구지 등의 문헌연구와 관련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로 이루어진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과 끈 보자기에 관한 전반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분석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끈 보자기의 조형미와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적용한 디자인 작품 총 3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1)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의의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생산 과정에서 섬유 폐기물을 거의 또는 전혀 생성하지 않는 의류를 총칭한다. 제로 웨이스트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한 방법으로서 크게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과 제품 사용 수명이 끝날 때 폐기물을 줄이는 것으로 나뉜다.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기모노(Kimono), 사리(Sari), 키톤(Chiton) 및 기타 많은 전통적인 민속 의상에서도 볼 수 있다(Wikipedia, n.d.).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제작과정에서 의류 폐기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의류 수명 주기에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옷 한 벌을 만들 때 평균 15%가량이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한다(Gordon & Hill, 2015).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한 방법으로서 제품의 기획과정부터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을 '0' 또는 '0'에 가깝게 만드는 실천적 방안이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하나로써 환경과 인간, 수익의 순환구조에서 옷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Hethorn & Ulasewicz,

2008) 또한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이 80% 정도 결정되는(Gwilt & Rissanen, 2011) 점에서 그 실행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친환경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이 가능하게 하여 디자인 창출에서도 방법론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Kook & Kim, 2016).

2)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성

(1)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유형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유형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티모 리사넨(Timo Rissanen)은 제작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류 폐기물 발생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단 후 봉제하는 방식인 컷 앤 소우(cut & sew), 편물에서 형태를 만들어나가며 버려지는 부분 없이 니팅하는 풀패션(full-fashioned), 그리고 원통형 천과 무봉제 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제작 방법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에이폭(A-POC)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Hethorn & Ulasewicz, 2008). Kook and Kim(2016)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컷 앤 소우, 니팅이나 3D 프린팅 등으로 형태를 구형해 나가는 가먼트 몰딩(garment molding),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유스 컨버팅(use converting)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컷 앤 소우 방식을 퍼즐 커팅(puzzle cutting), 서브트랙션 커팅(subtraction cutting), 폴드 커팅(fold cutting), 피겨 커팅(figure cutting), 모듈 커팅(module cutting)으로 세분화하였다. Yoon and Yim(2015)은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 방법에 있어서 그 유형을 크게 ZWPC(zero waste pattern cutting)과 NPC(non pattern cutting)의 두 분류로 나누고 이를 테일러링(tailoring)과 논 테일러링(non-tailoring), 드레이핑(draping)과 폴딩(folding) 방식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ok and Kim(20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유형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할 원단을 다양한 디자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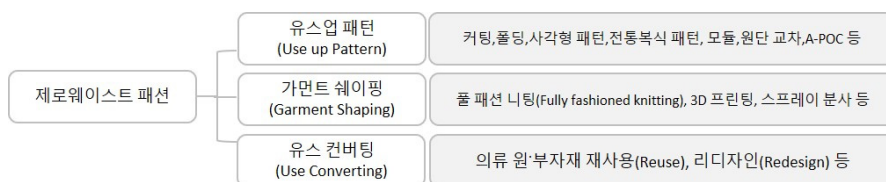


Figure 1. 제로 웨이스트 패션 유형.

을 통해 모두 소진하는 유스업 패턴(use up pattern)과 성형 방식으로 제작하여 버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제작해 가는 가먼트 셰이핑(garment shaping), 수명이 다한 의류의 원, 부자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새롭게 리디자인(redesign)하여 사용기간을 늘리는 유스 컨버팅 방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1).

첫 번째 유형으로 유스업 패턴은 사용할 원단의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모두 소진하는 유형으로 커팅, 폴딩, 사각형이나 기하학적 기반의 패턴, 전통복식 패턴, 원단 교차, 미야케의 에이폭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줄리안 로버츠(Julian Roberts)는 커팅을 통해 원단을 이동시키며 실루엣을 만들어가는 서브트랙션 방법으로 디자인하였

며(Figure 2), 줄리아 럼스덴(Julia Lumsden)은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테일러드 재킷과 셔츠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지하면서 모든 곡선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남은 원단을 디테일이나 디자인에 활용한 방식을 사용했다(Figure 3). 2011년 『YIELD: Making fashion without making waste』 전시에서 다시 선보인 잔드라 로드(Zandra Rhodes)의 ‘Chinese Squares’ 드레스는 사각형의 단순한 패턴에 프린트로 장식적 요소를 더하고 연결방식과 허리 여밈 등을 통해 구조적인 실루엣을 볼 수 있다(Figure 4). 미야케의 ‘132 5. ISSEY MIYAKE’는 컴퓨터 기술을 접목한 종이접기 방법을 활용하여 평평한 평면에서 펼치면 입체로 전환된다(Figure 5). 우리나라 파츠파츠(PARTsPARTs)의 임선옥은 네오프렌(neoprene)



Figure 2. 줄리안 로버츠.
From JULIAN ROBERTS RESEARCH. (2015).
<http://julianrobertsproject.blogspo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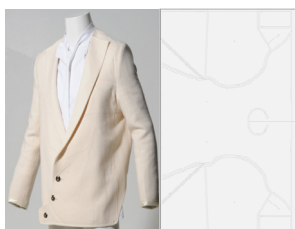


Figure 3. 줄리안 럼스덴.
From "YIELD: JULIA LUMSDEN". (2011).
<https://hollymcquillan.com>



Figure 4. 잔드라 로드.
From Holly Mcquillan. (2011).
<https://hollymcquillan.com>



Figure 5. 이세이 미야케 132 5.
From Issey Miyake's 132 5. (2010).
<http://www.dexigner.com>



Figure 6. 파츠파츠.
From 2016 S/S COLLECTION. (2019).
<http://www.parts-part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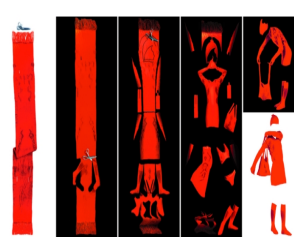


Figure 7. A-POC.
From A-POC Queen Textile. (n.d.).
<https://www.moma.org>

이라는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 원단 재고율을 줄이고 다트가 없는 패턴(dartless sloper)과 패턴을 퍼즐처럼 맞추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있다. 또 패턴 내부를 분할하여 다른 색상이나 질감의 원단과 서로 교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Figure 6)을 통해 장식성을 추구하기도 한다(Chung & Park, 2015). 갈리아 로젠펠드(Galya Rosenfeld)는 모듈 방식을 사용하여 봉제나 접착제 없이 유닛(unit)을 자유롭게 엮어 구성하고 가변되는 디자인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미야케의 에이폭은 신축성 있는 한 장의 천과 무봉제 시스템으로 착용자가 드레스, 모자, 스커트 등으로 자유롭게 재단해 선택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방법을 선보였는데(Joo & Jeong, 2017)(Figure 7), 이는 생산 공정 단축으로 에너지 사용 감소와 원단 사용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가먼트 셰이핑은 원하는 실루엣 성형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폴패션 니팅(Figure 8)이나 3D 프린팅, 신소재 등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3D프린터를 활용한 의상은 필라멘트 소재를 레이어(layer) 방식으로 쌓아 형태를 만들어가며 기존의 재단과 봉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이다(Figure 9). 수잔 리(Suzanne Lee)는 녹차와 설탕 용액을 효모와 미생물과 혼합해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 여러 겹의 막을 형성시킨 후 건조한 소재를 사

용해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들은 평면재단이나 3D 몰드를 사용해 제작되는데, 이는 천연원료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면서 몰드 사용 시 버려지는 부분 없이 성형이 가능한 방법이다(Figure 10). 이외에도 액체 신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이클 셔먼스(Michael Shemons)는 천연 액상 라텍스를 페인팅 방식으로 맞춤형 의상을 제작한다. 민소매 셔츠의 경우 1시간 이내, 드레스의 경우 2시간 이내로 빠른 제작이 가능하며 수년 동안 착용할 수 있다(XUR, n.d). 사만다 머레이(Samantha Murray)는 플라스틱 몰드에 섬유 용액을 부어 굳혀 의류를 제작하는데 향을 추가하고 입체적인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다(Figure 11).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위해 개발한 이 방법은 제작 과정에서 폐기물 감소 효과와 함께 제작 시간 단축 효과도 있다(Bucci, 2014). 이상의 두 가지 유스업 패턴과 가먼트 셰이핑 유형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감소(reduce)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 유스 컨버팅은 제품의 사용기간 최대화를 위해 사용을 다한 의류를 재사용하거나 리디자인하여 제품의 수명 주기를 늘리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유형이다. 수명이 다한 화물차의 방수천이나 현수막 등을 수거하여 가방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프라이탁(FREITAG)은 폐기되는 천막을 리디자인하여 재활용과 동시에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대표적 사례이다(Figure 12). 2017년 LVMH 그룹 쿵쿠



Figure 8. 폴패션 니팅.
From Brown, (2013),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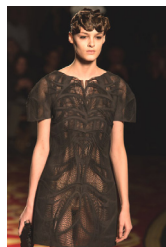


Figure 9. 아이리스 반 헤르펜.
From Chalcraft, (2013), <https://www.dezeen.com>



Figure 10. 수잔 리.
From Suzanne lee: eco textile fashion, (2011), <http://www.designb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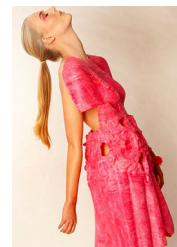


Figure 11. 사만다 머레이.
From Bucci, (2014), <http://startupfashion.com>



Figure 12. 프라이탁.
From OLLIE. (2016).
<http://www.freitag.ch>



Figure 13. 마린 세르.
From Pithers. (2018).
<http://www.vogue.co.uk>



Figure 14. 오파알.
From PURE BLACK-SWEAT
FEMME. (n.d.).
<http://www.hopaal.com>



Figure 15. 레코드
From RE:CODE. (n.d.).
<http://www.kolonmall.com>



Figure 16. 컨티뉴.
From CONTINEW
airbackpack. (n.d.).
<http://wecontinew.co.kr>

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린 세르(Marine Serre)는 빈티지 아이템을 이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자신의 컬렉션에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 2018 A/W 컬렉션에서는 빈티지 스카프를 활용한 드레스와 가방 등을 선보이며(Figure 13) 이제는 재활용이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Pithers, 2018). 오파알(Hopaal)은 재활용 의류와 소재를 약 90%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패션업체로 재활용 옷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순한 스타일로 낮추고 의류 폐기물과 물 소비량, 화학약품에 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다(Figure 14). 우리나라의 레코드(RE:CODE)도 재고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경제적 손실 감소와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기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브랜드로 다양한 재고품들을 해체하여 재사용한 독특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Figure 15). 폐자동차와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수거한 시트의 천연가죽,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컨티뉴(CONTINEW)도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재사용하여 독특한 소재와 친환경적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실천 사례를 볼 수 있다(Figure 16).

(2)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교육자이자 행동가인 알라스타어 푸에드릭(Alastair Fuad - Luck)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세 가지 특성을 타임리스 스타일

(time-less style), 리뉴어블 디자인(renewable design), 멀티 펑셔널 디자인(multi-functional design)으로 정의했으며(as cited in Lee et al, 2007) Lee(2017)는 전통성, 지속성, 기능성, 독창성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성이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조되는 의미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로 민족 고유의 전통공예를 현대패션에 접목하여 고급화하는 것이며, 지속성은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다. 기능성은 다양한 기능으로 제품의 수를 줄여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며 독창성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활동으로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ook and Kim(2016)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 구성 방법의 자율성, 표현의 유연성과 의외성, 물질의 절제에 따른 간결성으로 분석하였으며, Kim and Kim(2018)은 디자인 방법의 혁신성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자원의 지속성을 위해 기존의 생산방식 대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방법이며 트렌드와 유행을 쫓기보다 제품수명 기간이 길고 전통을 현대화하는 공통적 특성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디자인 방식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적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결합을 기대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끈 보자기에 관한 고찰

1) 보자기의 역사와 종류

보자기는 형질으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물건을 덮거나 싸기 위해 사용되며 이 중 특히 작은 것만을 보자기로 구분하였다(Kim, 1998). 보자기의 명칭은 보(褙), 복(複), 보자(褙子), 폭(幅), 복(福) 등 지방마다 다르고 한자 표기도 조금씩 다르며 지방마다 바부재, 보대기, 보파리, 밥수건, 보대(褙袋) 등으로 불린다(Kim, 2009). 우리나라의 고유한 생활 용구인 보자기는 현대 생활에서 물건을 싸서 운반하거나 선물용으로 장식하는 등 제한된 용도 이외에도 밥상보, 이불보, 헛대보 등 일상생활부터 혼례용, 불교 의식용, 제례에까지 그 사용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보자기가 사용된 원인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낮고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작게 접어 보관한 것과 둘째, 기복신앙적 요인으로 자수나 조각천을 이어 붙이며 복을 비는 정성의 표현이자 복을 싸둔다고 하여 혼례용으로 예물을 싸기도 하였다. 셋째, 의례적 측면으로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예의와 마음의 표현으로 보자기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호와 장식의 의미는 곧 옷의 의미와도 통하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보자기 유물인 선암사의 탁자보는 고려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탁의(卓衣)라는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Huh, 2004).

보자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의 고승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6가야 성립에 관한 시조 설화에 보자기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여 신화의 발생 시기인 1세기 초 또는 2~3세기로 추정되어 보자기는 매우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자기는 계층, 사용 목적, 제작 방법, 장식, 문양, 소재와 용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계층에 따라 궁중에서 쓰던 궁보와 서민들의 민보(民褙)로 나뉘며 궁보는 다 목적용으로 쓰인 민보와는 달리 단일한 목적으로 만들어 밥상보(Figure 17), 제기보, 은바리보, 노리개보(Figure 18), 이불보 등 목적에 따라 불렀다(Kim, 2011). 제작 방법에 따라서는 조각보, 수보(Figure 19), 식지보(Figure 20)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식(바느질 방법)에 따라 홀보(Figure 21), 겹보, 숨보, 누비보(Figure 22) 등으로 나뉜다. 문양에 따라서는 조각보, 당채보, 금박(金粉)보, 판보 등으로 나뉘고 소재에 따라 명주보(明紬褙), 단보(緞褙), 마보(베보), 무명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작은 장식품으로는 약 30센티미터, 예물용으로는 약 60cm, 의류용으로는 약 120cm, 껌, 상장, 포단 등을 싸는 데는 2m 가까이 되는 다양한 크기의 보자기가 사용되었다(Kim, 2009).

우리나라의 보자기와 비슷한 것이 일본에는 후로시키(ふろしき, 風呂敷), 중국에는 파오프(包袱), 인도네시아에도 비슷한 것이 있으나 물건을 싸는



Figure 17. 밥상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89.
<http://www.gogung.go.kr>



Figure 18. 노리개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95.
<http://www.gogung.go.kr>



Figure 19. 수보.
From Kim, (2009).
p. 28.



Figure 20. 식지보.
From Kim, (2009).
p. 37.



Figure 21. 홀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5). p. 78.
<http://www.gogung.go.kr>



Figure 22. 누비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5). p. 180.
<http://www.gogung.go.kr>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며, 형태면에서 우리나라의 보자기는 가장자리에 끈이 붙어 있기에 크기가 큰 것도 끈을 사용해 묶을 수 있어 일본의 보자기보다 포용의 폭이 넓었다(Lee, O. Y., 2015).

2) 끈 보자기의 형태

보자기의 끈은 안감과 같은 천, 같은 색으로 만든 것이 일반적이며 끈이 달린 위치는 안쪽 면의 네 귀에 붙어있는 것, 한 귀에만 붙어있는 것, 대칭으로 2개 달린 것, 안쪽 면 가운데와 한쪽 귀에 달린 것 등 다양하다(Figure 23). 끈의 길이는 대체로 한 번의 길이보다 길어 커다란 물건도 쌀 수 있었으며(Kim, 2009) 끈의 개수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달랐는데 한 개의 끈이 달린 것은 노리개나 작은 장식물을 쌀 때, 두 개인 것은 패물류, 세 개는 예단이나 옷감을 쌀 때 주로 사용되었다. 끈이 네 개 달린 것은 함이나 큰 밥상처럼 큰 물건을 쌀 때 주로 사용되었고 끈이 없는 것은 안에 깔거나 덮는데 사용되었다(Kim,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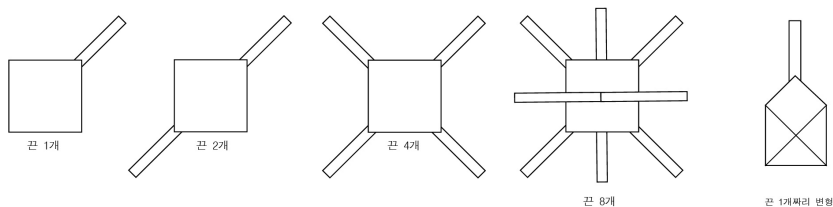


Figure 23. 끈 보자기의 형태.
From Kim, (2009). p. 29.

서민들의 보자기는 사용 빈도에 따라 크게 상용보와 비상용보로 나눌 수 있으며 풍속화를 통해 그 사용방식을 볼 수 있다. 상용보에는 합지박 등을 덮는 부엌용구, 침선(針線)용구와 보부상보, 책보, 붓집 등이 있는데 18세기 김홍도의 『사계풍속도』 중 『봄풍경』(Figure 24)에서는 한 여인이 흑색 상보로 덮은 소반을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에서 이동 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이 달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리보는 여행할 때 어깨에 걸치는 보자기로 시장, 행려풍속도, 승려 그림 등에서 발견되는데 김득신의 『양반과 농민』(Figure 25)에서도 여인의 허리춤에 세모꼴로 조각찬을 덧댄 붓집을 볼 수 있다. 비상용보는 주로 혼례용으로 쓰이는 기러기보, 폐백보, 함보 등(Kim, 2009)으로 김준근의 『예물 보내고』(Figure 26)에서도 함진아비 두 명이 함보에 함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끈 보자기의 특성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끈 보자기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24. 『사계풍속도』 중 『봄풍경』.
From Kim, (2009).
p. 38.



Figure 25. 『양반과 농민』.
From You, (2011).
p. 161.



Figure 26. 『예물 보내고』.
From Lee, (1995).
<http://encykorea.aks.ac.kr>

(1) 친환경성

우리 전통 끈 보자기는 면, 마, 종이, 실크 등 천연 소재들을 사용하였으며 제작과정에서도 직물의 너비(폭)를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크기에 따라 여러 폭을 이어 붙여(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5) 만들어 버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또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처럼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일회성이 아닌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늘려 제작부터 사용과정, 폐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 특징을 지닌다.

(2) 포용성

포용성이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성질’로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란 특별한 디자인이나 개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디자인을 말한다(British Standards Institute, as cited in Kim, 2015). 끈 보자기는 연령, 계층, 성별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포용적 디자인의 특성을 보이며 안에 담은 물건을 보호하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건을 포용하며 크기가 큰 물건을 쌀 때도 끈을 사용해 묶어 그 포용의 폭이 넓다.

(3) 고정성

끈 보자기는 끈을 통해 보자기를 두르거나 다른 물건 또는 사람과 연결해 고정하는 특징이 있다. 끈은 용도에 따라 개수와 위치를 달리하여 효과적으로 고정될 수 있게 하였으며,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있어 효용성이 높다. 상보는 이동 시 바람에 날리지 않게 고정하였으며, 왕실의 보자기도 중요한 장신구와 책 등을 끈 보자기로 고정하여 쉽고 단정하게 고정하였다.

4) 끈 보자기의 조형미

끈 보자기의 조형미를 분석하면 중첩의 미, 가변적 미, 색채의 미, 선과 면의 미로 분석할 수 있

다(Table 1).

(1) 중첩의 미

끈 보자기는 한 장의 천일 때는 가볍고 견고함이 없다. 그러나 안에 물건을 싸기 위해 사각형 천의 네 귀가 질서 있게 겹쳐지고 포개지거나(Figure 27), 개서 접어들 때 면과 면이 포개져 나타나 견고한 중첩의미를 느낄 수 있다(Figure 28).

(2) 가변적 미

보자기는 개폐에 의해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워 보관이나 운반용으로 사용 시에는 용적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둘 수 있고(Huh, 2004) 싸는 물건의 크기와 형태, 용도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가변적 미가 있다(Figure 29, 30). 이러한 내용물과 보자기가 일체가 되는 특성은 탈근대적인 유니버설(*universal*) 요소로 볼 수 있다. 또 보자기에는 싸고 가리고 메고 덮고 깔고 들고 머리에 이는 등 가변적이며 여러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행위를 유발한다.

(3) 색채의 미

보자기를 접어서 사용하거나 끈이 개입될 때 특유의 배색 효과가 나타나며 색채의 조화를 이룬다. 조선시대 보자기의 색채를 분석해보면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한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색의 오방색과 이와 결합하는 오간색(연구자 주: 오방색 가운데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얻은 색)으로 나타났으며(Noh, 2006) 이러한 색상들은 보자기의 면과 끈의 관계에서나 보자기 양면의 배색, 문양과 자수 등에 있어서 색상대비, 보색대비(Figure 31), 명도대비(Figure 32), 채도대비(Figure 33) 등을 이루는 색채조화를 볼 수 있다.

(4) 선/면의 조형미

끈 보자기는 펼쳤을 때 사선(Figure 34), 방사선,

Table 1. 끈 보자기의 조형미.

구 분	특 성	대표사례		
중첩의 미	사각형 천의 네 귀가 질서 있게 겹쳐지고 포개져 중첩의 미가 느껴짐			<p>Figure 27. 장신구 포장.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49. http://www.gogung.go.kr</p> <p>Figure 28. 겹보자기 포장.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p. 485. http://www.gogung.go.kr</p>
가변적 미	싸는 물건과 용도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가변적 미가 있으며, 여러 의 미와 행위를 유발			<p>Figure 29. 목안과 기러기보. From Lee. (2016). http://www.koya-culture.com</p> <p>Figure 30. 괴나리보. From Oldroad museum. (2014). https://www.facebook.com</p>
색채의 미	보자기를 접어서 사용하거나 끈이 개입될 때 특유의 배색 효과가 나타남 색채조화 측면에서는 색상대비, 보색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 등			<p>Figure 31. 장신구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p. 471. http://www.gogung.go.kr</p> <p>Figure 32. 노리개보. From Kim. (2009). p. 32.</p> <p>Figure 33. 겹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96. http://www.gogung.go.kr</p>
선/면의 조형미	-선: 사선, 방사선, 자유곡선 등의 선적 조형미 -면: 사각형이 기본이며 접는 방법에 따라 오각형, 육각형 등도 나타남 접거나 펼쳤을 때 기하학적 미가 나타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미가 나타남 -선과 면이 동시에 어우러져 다양하게 나타나는 조형미			<p>Figure 34. 맛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5). p. 186. http://www.gogung.go.kr</p> <p>Figure 35. 누비맛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p. 208. http://www.gogung.go.kr</p> <p>Figure 36. 속보.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p. 185. http://www.gogung.go.kr</p>

자유곡선(Figure 35) 등 선적 조형미가 나타나며, 접거나 펼쳤을 때 사각형을 기본으로 오각형, 육각형 등으로 기하학적 미가 나타나며(Figure 36) 물건을 싸서 묶었을 때 물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미가 나타난다.

5) 보자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

보자기를 디자인 모티프로 그 조형 요소와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쥘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매듭과 보

자기의 감싼 형태를 응용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톱(top)에 작은 붓집 형태의 보자기들을 디테일로 적용하거나 스커트 허리 부분에 커다란 보자기를 주머니처럼 디자인에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37). 2015년 이상봉의 30주년 기념 컬렉션에서 우리 전통 보자기를 주제로 리넨과 실크 등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화이트, 블랙, 블루, 레드 색상을 주로 사용한 색상배색과 선과 면의 분할로 조형미를 보여주었다. 또 끈을 활용해 목이나 허리 부분에 고정하는 디자인이나 주름과 함께 풍성한

보자기의 실루엣 등도 표현하였다(Figure 38). 2016년 서울 DDP에서 열린 샤넬의 크루즈(cruise) 컬렉션에서도 색동, 보자기, 자개 등 한국 전통 모티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을 선보였는데, 얇고 가벼운 천들을 사용해 크고 우아한 실루엣을 통해 포용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Figure 39). 이외에도 크리스토퍼 에스버(Christopher Esber)도 2018년 S/S 컬렉션에서 드레스 상의의 양쪽 면을 겹쳐서 소매 부분에서 보자기처럼 묶거나 셔츠의 허리 부분에 여러 겹의 끈으로 돌려 묶는 등 보자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을 선보였다(Figure 40). 에르메스도 2019년 S/S 시즌 'L'Art Du Bojagi (보자기의 예술)'라는 스카프를 출시했는데 총괄 디렉터인 피에르 알렉시 뒤마(Pierre-Alexis Dumas)가 한국 전통시장의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스카프들은 140cm의 정방형 술 형태에 조각 보 패턴과 가장자리에 4개의 끈이 달린 모양이 프린트되어 있다(Yoon, 2019)(Figure 41). 레지나 표(Rejina Pyo)도 2019년 S/S 컬렉션에서 전통적 붓짐 형태의 보자기 가방들을 선보이며 강렬한 원색과

함께 최근 편안함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42).

이상의 보자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의 사례들을 고찰한 결과, 첫째, 사각의 평면적인 보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에 인체의 굴곡과 움직임에 따라 가변되는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보자기에 물건을 넣어 둥글고 풍성한 보파리 형태를 사용한 경우는 몸에 의상의 일부로서 부착하거나 소품으로 강조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색채의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문양, 형태 등 각각 제시하고자 하는 보자기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끈 보자기의 조형미로서 보자기를 끈과 같이 입체적으로 응용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에르메스의 스카프에서 한국의 끈 조각보를 프린팅하여 표현한 사례가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표현 모티프로써 보자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전통 문화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써 여전히 발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7. 꿈 데 가르송.
From Mower. (2003).
www.vogue.com



Figure 38. 이상봉.
From Lee, Y. H. (2015).
<http://www.ktnews.com/>



Figure 39. 샤넬.
From Blanks.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40. 크리스토퍼 에스버.
From Yotka. (2017).
<http://www.vogue.com>



Figure 41. 에르메스.
From Yoon. (2019).
<https://www.insight.co.kr>



Figure 42. 레지나 표.
From Leitch. (2019).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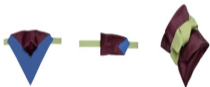





III. 디자인 계획 및 제안

1. 작품 디자인 계획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실현을 위해 버려지는 부분 없이 사각형 형태로 제작되며 담는 물건에 따라 무궁무진한 형태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전통 끈 보자기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 디자인 모티프로 채택하였다. 이에 끈 보자기의 특성을 친환경성, 포용성, 고정성으로 분석하고 그 조형미를 중첩의 미, 가변적 미, 색채의 미, 선/면의 조형미

미, 선과 면의 조형미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고 표현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및 구성 방법으로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유형 중 유스업 패턴 방식으로 보자기의 사각형을 기본으로 활용하였고 직사각형 원단에 시접을 포함한 패턴을 설계하고 재단하여 구성하였다. 직선 재단의 여유로운 핏(fit)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체형에 상관없이 폭넓게 착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소재는 모두 친환경 소재인 실크 100%(명주)를 사용하고 색채는 블랙과 저채도의 블루그린, 블루이쉬 그레이, 레드를 사용하였

Table 2. 작품 계획.

작품번호	디자인 모티프	조형미	표현 방법	소재	색채	디자인화
작품 I	 <p>Figure 43. 작품 I 모티프.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79. http://www.gogung.go.kr</p>	중첩의 미 가변적 미 색채의 미 선/면의 조형미	-레이어링 -아이템 전환 -사각형 구조/형태 -매듭 묶기 -띠로 묶어 늘어뜨리기 -셔링 -비대칭, 비정형 실루엣	실크		 <p>Figure 44. 작품 I 디자인화. Captured by the author (June 10, 2020)</p>
작품 II	 <p>Figure 45. 작품 II 모티프.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79. http://www.gogung.go.kr</p>	가변적 미 색채의 미 선/면의 조형미	-리버시블 -매듭 묶기 -사각형 구조/형태 -띠로 돌려 묶기 -비대칭, 비정형 실루엣	실크		 <p>Figure 46. 작품 II 디자인화. Captured by the author (June 10, 2020)</p>
작품 III	 <p>Figure 47. 작품 III 모티프.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p. 79. http://www.gogung.go.kr</p>	가변적 미 선/면의 조형미	-셔링 -사각형 구조/형태 -매듭 묶기 -띠로 묶기 -띠로 묶어 늘어뜨리기 -비대칭, 비정형 실루엣	실크		 <p>Figure 48. 작품 III 디자인화. Captured by the author (June 10, 2020)</p>

다. 배색효과는 채도대비와 명도대비를 적용하였다. 작품Ⅰ과 Ⅲ은 홀보와 같이 단면으로, 작품Ⅱ는 겹보처럼 양면에 다른 색을 배색하여 리버시블(reversible)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으며 끈의 개수는 각각 8개, 4개, 2개를 사용하였다. 작품 계획은 <Table 2>와 같다.

2. 작품 디자인 제안 및 해설

1) 작품Ⅰ

작품Ⅰ은 보자기의 면들이 겹쳐져 중첩되고 끈의 고정성을 통해 가변되는 모티프(Figure 43)를 카디건과 랩 드레스(wrap dress), 그리고 레이어드 스타일의 드레스로 전환되는 디자인(Figure 44)으로 전개한 작품이다. 컬러는 모던한 블랙에 레드의 끈을 구성하여 명도대비와 채도대비와 같은 색채의

미를 의도하였고 매듭으로 묶거나 띠로 돌려 묶어 늘어뜨리는 등 선적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44in(약 112cm) 원단 폭을 모두 사용하는 가로 56cm, 세로 73cm의 패턴 A, A', B, B'와 가로 112cm, 세로 90cm 패턴 C, C'로 사각형 형태의 패턴을 설계하여 원단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높이 6cm의 56cm, 112cm 레드 끈을 각각 4개, 2개, 높이 8cm의 112cm 블랙 끈 2개로 총 8개의 끈을 구성하였다(Figure 49). 이를 A와 A'는 앞판으로, B와 B'는 뒤판으로 구성하고 어깨선부터 소매까지 같이 봉제하여 연결하고 C와 C'는 하단에 사선 방향으로 접어 앞과 뒤의 중심선에 맞추어 박음질하였다. 끈은 몸판 안쪽 옆선에 1개, 몸판 2개, 소매 부분 1개, 하단 패널에 총 4개를 구성하여 묶는 방식에 따라 모두 풀었을 때는 카디건에서 안쪽 끈과 몸판의 끈들을 띠로 돌려 묶는 랩 드레스, 하단 부분의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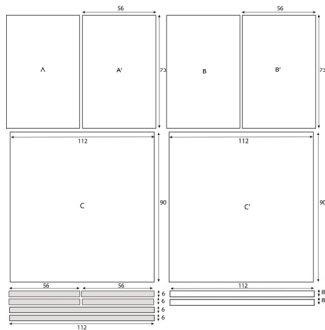


Figure 49. 작품Ⅰ의 제로 웨이스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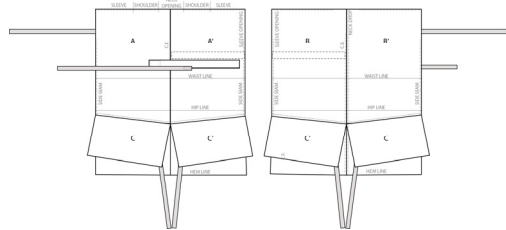


Figure 50. 작품Ⅰ의 구성도(앞, 뒤).



Figure 51. 작품Ⅰ 사진.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20).

들을 어깨 부분에서 앞뒤로 묶어 레이어드 드레스로 전환되는 가변적 미를 느낄 수 있게 의도하였다(Figure 50). 부드러운 실크 소재에 적용한 사각형 패턴의 형태와 구조는 곡선의 인체 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떨어지며 비대칭, 비정형적 실루엣을 구성하고 끈을 서로 묶는 방식에서 다양한 선과 면의 조형미가 창출되게 하였다. 하단의 사선 방향으로 접은 원단들은 바이어스로 자연스럽게 풍성한 셔링 디테일을 만들며 보자기의 포용성이 강조되도록 완성하였다(Figure 51).

2) 작품 II

작품 II는 끈이 달린 겹보자기로 감싸는 모티프 <Figure 45>를 응용하여 양쪽 면에 다른 색상으로 배색한 리버시블 드레스로 디자인하였다(Figure 46). 블랙과 그린 색상의 44in 원단에 가로 56cm, 세로

44cm의 A, A', B, B', 가로 112cm, 세로 56cm의 C, C', D, D' 직사각형 패턴들을 구성하고 높이 10cm의 109cm 끈 4개(E, E', F, F')와 끈의 고정성을 더하기 위해 루프(loop)(G, G', H, H')를 구성하여 재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였다(Figure 52). 이를 <Figure 53>과 같이 A와 B, A'와, C와 D, C'와 D'로 양면이 되도록 구성하고 허리선을 먼저 봉제하여 연결한 후 시접들은 접어박기로 처리하였다. 어깨선은 3cm 겹쳐지게 하여 직선 재단에도 편안하게 연결되고 사각형 패턴의 원단의 여유와 끈의 높이를 다르게 디자인하여 비정형적 실루엣을 의도하였다. 양면과 끈의 배색으로 명도대비, 채도대비를 적용해 끈 보자기의 색채의 미를 강조하였으며 가변적 미와 동시에 효용성을 높였다(Figur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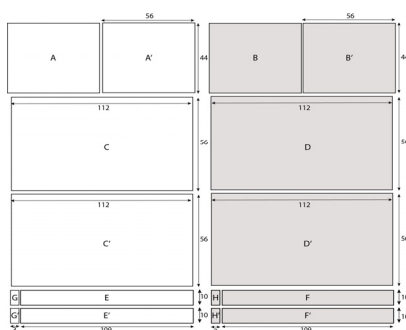


Figure 52. 작품 II의 제로 웨이스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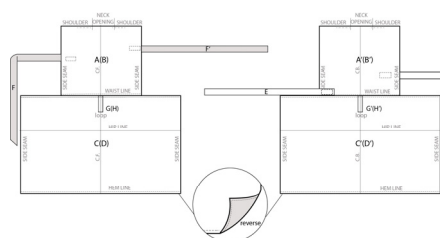


Figure 53. 작품 II의 구성도(앞, 뒤).



Figure 54. 작품 II 사진.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20).

3) 작품Ⅲ

작품Ⅲ은 끈 보자기의 자유로운 선적 요소와 다양한 물건을 감싸는 이미지를 모티프 <Figure 47>로 7부 소매 길이의 드레스로 디자인하였다(Figure 48). 44in(약 112cm)의 원단을 <Figure 55>와 같이 가로 56cm, 세로 46cm의 A, A', B, B' 패턴과 가로 112cm, 세로 62cm의 C, C'로 구성하고 10cm 높이의 109cm 끈 D, D'로 구성해 원단 폐기물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A와 A'는 앞판, B와 B'는 뒤판, C와 C'를 스커트의 앞, 뒤판으로 배치하고 양쪽 허리 부분에 끈(D, D')을 배치하였다. 양쪽 어깨선과 허리선에 루프(E, E', F, F')를 배치하여 끈의 고정성과 장식성을 의도하였다(Figure 56). 넓은 소매통은 중앙의 a와 a'를 함께 박음질하여 17cm로 완성하고 동시에 기하학적인 실루엣이 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사각형 형태의 패턴과 구조는 끈을 띠로 묶거나 늘어뜨리기, 매듭 등을 통해 실루엣과 디테일들이 변화하는 가변적 미를 의도하였고 루프를 통해 끈을 사선, 방사형 등 자유롭게 구성하며 선과 면의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건을 감싸는 끈 보자기의 풍성한 형태미는 셔링과 주름, 곡선적 드레이프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Figure 57).

IV. 결 론

오늘날은 산업 폐기물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필환경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의류 폐기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디자인 연구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실천적인 방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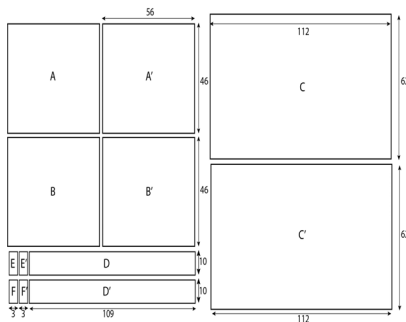


Figure 55. 작품Ⅲ의 제로 웨이스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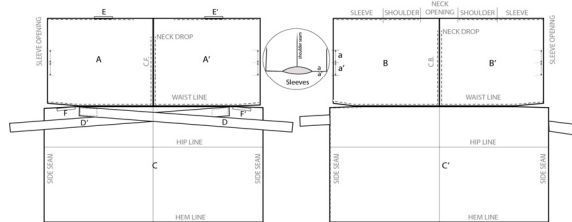


Figure 56. 작품Ⅲ의 구성도(앞, 뒤).



Figure 57. 작품Ⅲ 사진.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20).

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으로서 한국 전통 끈 보자기를 표현 모티프로 선정하여 한국 고유의 독특한 멋을 지닌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끈 보자기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 포용성, 고정성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끈 보자기의 조형적 미를 분석한 결과 질서 있게 겹쳐지고 견고한 중첩의 미, 개폐와 용적, 용도에 따른 가변적 미, 면과 끈의 배색 관계에 따른 색채의 미, 겹거나 펼쳤을 때 나타나는 선과 면의 미로 도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끈 보자기를 적용한 결과, 사각형의 형태와 끈을 활용하는 유스업 패턴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폐기물을 현저히 줄이고 기존의 제작방식을 간소화하는 친환경적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보자기의 형태와 구조를 적용하여 패턴을 구성하고 끈을 활용했을 때, 단순한 의상의 형태에 셔링, 드레이프 등의 장식적 요소가 부가되어 인체의 곡선적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었다. 다섯째, 끈 보자기의 고정성에 기반하여 끈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묶는 방식을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가변적 미가 창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 묶는 방식에 따라 카디건에서 드레스 등으로 아이템이 전환되며, 실루엣, 디테일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겹감과 안감 또는 끈에 색채 특성을 적용한 결과 명도대비, 채도대비 등 색채의 미가 강조되고 리버시블 디자인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끈을 의상에 적용했을 때 다양한 선적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고 이동을 통해 면을 중첩시켜 중첩의 미와 함께 새로운 선과 면의 조형미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작품에 사용

한 실크 등의 소프트한 소재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보자기의 부드러운 포용성도 강조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방법이 우리나라 전통 끈 보자기의 구조적, 미적 활용을 통해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다각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여기고 낭비 없는 문화를 실천했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문화 유산에서 지혜와 미적 단서를 찾아 현대화하는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med, I., & Berg, A. (2019, November 21). The State of Fashion 2020 Report: In Troubled Times, Fortune Favours the Bold. *Business of Fashion*.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intelligence/the-state-of-fashion-2020-bof-mckinsey-report-release-download>
- A-POC Queen Textile. (n.d.). *MoMA*.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100361>
- Blanks, T. (2015, May 4). *VOGUE*. Retrieved July 2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16/chanel>
- Brown, C. (2013). *Knitwear Desig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 Bucci, J. (2014, February 15). SWEET SUSPENSION: LIQUID FABRIC FASHION. *STARTUP FASHION*. Retrieved March 3, 2020, from <https://startupfashion.com/sweet-suspension/>
- Butler, S. (2019, August 21). G7 and fashion houses join forces to make clothes more sustainable. *The Guardian*.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1/fashion-g7-summit-sustainability-keri-ng-inditex-macron>
- Cha, M. Y. (2019, May 15). 매년 8만톤 폐섬유 쓰레기에도...국내 의류업체 '재활용' 난색 [80,000 tons of waste fiber waste every year... Domestic apparel company 'recycling' difficulties]. *Asia Business Daily*. Retrieved April 1, 2020, from <https://www.asiac.co.kr/article/2019051510260239121>
- Chalcraft, E. (2013, January 22). Voltage by Iris van Herpen with Neri Oxman and Julia Koerner. *dezeen*.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dezeen.com/2013/01/22/v/>

- oltage-3d-printed-clothes-by-iris-van-herpen-with-neri-oxman-and-julia-koerne/
- Cho, H. J., & Kim, J. H. (2000). A study on modern costume design applied the formativity of Korean traditional cloth wrapper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3(1), 7-18.
- Chung, H. J. (2007). A study on patterns Expressed of Embroidered Pojagi.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0(3), 33-44.
- Chung, H. J., & Park, J. H. (2015). Zero-waste design of PartspARTs IMSEONOC. *Journal of Fashion Design*, 15(4), 171-186. doi:10.18652/2015.15.4.11
- CONTINEW airbackpack. (n.d.). *Continew*. Retrieved September 5, 2020, from http://wecontinew.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00&cate_no=30&display_group=1
- Gordon, J. F., & Hill, C. (2015). *Sustainable fashion: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Gwilt, A., & Rissanen, T. (2011). *Shaping sustainable fashion: Changing the way we make and use clothes*. London: earthscan.
- Hethorn, J., & Ulasewicz, C. (2008). *Sustainable Fashion Why Now?*. New York: Fairchild book.
- Holly Mcquillan. (2011, March 28). YIELD: ZANDRA RHODES - CHINESE SQUARES. *Holly Mcquillan*.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hollymcquillan.com/category/patterns/>
- Huh, D. H. (2004). Bojagi Culture. *Korean Society of Museum Studies*, 7(-), 138-141.
- Issey Miyake's 132 5. (2010, December 2). *DEXIGNER*. Retrieved June 7, 2020, from <https://www.dexigner.com/news/22036>
- Joo, S. K., & Jeong, J. C. (2017). Characteristics of A-POC in Issey Miyake collec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3), 259-266. doi:10.5805/SFTI.2017.19.3.259
- JULIAN ROBERTS RESEARCH. (2015, June 30). *Julian Roberts Project*.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julianrobertsproject.blogspot.com/2015/06/julian-roberts-research.html>
- Kim, H. H. (2009). *보자기 만들기* [Making Pojagi]. Seoul: Mizinsa.
- Kim, J. M. (2011). A study of modern practical use group for traditional Bozagi: Focusing on Furoshiki of Japan. *Journal of Asian Ethno-Forms*, 9(1), 131-144.
- Kim, M. S. (2004). *색고운 우리포장* [Gift Wrapping]. Seoul: Haumdesign.
- Kim, S. H., & Kim, H. Y. (2018). A study on zero-waste fashion design that applied formative beauty of Paper - folding. *Journal of Fashion Design*, 18(1), 137-154. doi:10.18652/2018.18.1.9
- Kim, S. Y. (2012). *Study focused on the design value of formativeness in cloth wrapper of Gangre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yang, Seoul.
- Kim, T. (2015). Characteristics of inclusive design and its meaning in the future society.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8(2), 137-151. doi:10.15187/adr.2015.05.28.2.137
- Kim, Y. S. (1998). *Dictionary of Korean dress culture*. Seoul: Misul Munhwa.
- Kook, H. S., & Kim, H. Y. (2016). A study on features of sustainable zero waste fashion design.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7(1), 31-45.
- Lee, H. Y. (2016, December 13). 고색창연한 옛 색, 오색 찬란한 한국의 색을 찾다 [Looking for a pale old color s, brilliant Korean colors]. *Koya-culture*. Retrieved June 1, 2020, from <http://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06179>
- Lee, K. G. (1995). 혼례 [Wedding ceremony].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3893#modal>
- Lee, O. Y. (2015). *Lee Oyoung's Bojagi Humanities* (Huh, S., Trans.). Seoul: Maroni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 Lee, Y. H. (2015, November 06). [컬렉션] LIE SANGBONG 2016 S/S COLLECTION - 런칭 30주년 “뜨겁고 치열하게 흘린 땀방울...” [[Collection] IE SANGBONG 2016 S/S COLLECTION - 30th anniversary of the launch “Hot and fierce sweats...”]. *Korea Fashion+Tex News*.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22>
- Lee, Y. H., Lee, H. A., & Park, J. O. (2007). Sustainable slow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 21-32. doi:10.5850/JKSCT.2007.31.1.021
- Lee, Y. S. (2017). Development of zero-waste fashion design using subtraction cutting method: Focused on cotton jersey. *Journal of Fashion Design*, 17(2), 21-35. doi:10.18652/2017.17.2.2
- Leitch, L. (2018, September 17). SPRING 2019 READY-TO-WEAR Rejina Pyo. *VOGUE*. Retrieved Mar 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rejina-pyo>
- Mower, S. (2003, March 6). *VOGUE*.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3-ready-to-wear/comme-des-garcons>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May 15). The Costume of Imperial Prince Yeong Family.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gogung.go.kr/commonBbs/FileDown.do?bbsSeq=5613&bbsFileSeq=1>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5, November 30). WRAPPING CLOTH OF THE JOSEON ROYAL COURT.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s://www.gogung.go.kr/commonBbs/FileDown.do?bbsSeq=6279&bbsFileSeq=1>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June 23). Courtly Tradition: The Art of Wrapping in the Joseon Dynasty.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Retrieved May 15, 2020, from <https://www.gogung.go.kr/commonBbs/FileDown.do?bbsSeq=6128&bbsFileSeq=1>
- Noh, E. H. (2006). A study on color distribution of Bojagi in Joseon peri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20(3), 51-60.
- Oldroad museum. (2014, May 15). 괴나리봇짐. *Facebook*.

- Retrieved July 5, 2020, from <https://www.facebook.com/oldroadmuseum/photos/a.602976153128553/626890154070486>
- OLLIE. (2016, February 3). VINTAGE TARP BAGS. *FREIGHTAG*. Retrieved September 5, 2020, from <https://www.freitag.ch/en/node/3861>
- Pithers, E. (2018, August 6). Meet Marine Serre, The French Designer Energising Fashion. *VOGUE*.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vogue.co.uk/article/marine-serre-interview>
- PURE BLACK-SWEAT FEMME. (n.d.). *HOPAAL*.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hopaal.com/collections/sweats-femme/products/pure-black-sweat-femme>
- RE;CODE. (n.d.). *KOLON MALL*.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kolonmall.com/Brand/Collection/DEFAULT?no=1773&brand=6442>
- Suh, O. K. (2017). A study on bag design inspired by Jogakbo.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8(6), 297-308.
- Suzanne lee: eco textile fashion. (2011, November 13). *designboom*. Retrieved May 5, 2020, from <https://www.designboom.com/design/suzanne-lee-eco-textile-fashion/>
- Villemain, C. (2019, March 25). UN launches drive to highlight environmental cost of staying fashionable. *UN News*.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news.un.org/en/story/2019/03/1035161>
- Wikipedia. (n.d.). Zero-waste fashion. *Wikipedia*. Retrieved March 5,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Zero-waste_fashion
- XUR. (n.d.). *XUR*.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xur.info/index.php>
- YIELD:JULIA LUMSDEN - HABILIMENTS. (2011, April 6). *Holly Mcquillan*. Retrieved June 7, 2020, from <https://hollymcquillan.com/2011/04/06/yieldjulia-lumsden-habiliments/>
- Yoon, H. Y. (2019, February 17). 한국 시장표 보자기서 영감 받은 '120'만원짜리 에르메스 신상 스카프 [\$1200 New Hermès scarf inspired by Korean market scarf]. *IN SIGHT*. Retrieved June 5, 2020, from <https://www.insight.co.kr/news/211241>
- Yoon, J. Y., & Yim, E. H. (2015). Design methodology for the realization of zero-waste fashion design: Focused on the typology of ZWP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6), 929-939. doi:10.29049/rjcc.2015.23.6.929
- Yotka, S. (2017, September 14). SPRING 2018 READY-TO-WEAR Christopher Esber. *Vogue*. Retrieved July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christopher-esber>
- You, H. J. (2011).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4* [My Cultural Heritage Tour 4]. Kyunggi: Changbi Publisher.
- 2016 S/S COLLECTION. (2019, May 28). 2016 S/S COLLECTION. PARTsPARTs. Retrieved September 5, 2020, from <http://www.parts-parts.kr/?portfolio=2016-s-s-collection>

A Study on Zero Waste Fashion Design that Applied Formative Beauty of String Bojagi, Korean Traditional Wrapping Cloth

Kim, Sook Hyun • Kim, Hea Yeon⁺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As one of the industries that contribute greatly to environmental pollution, the fashion industry is required to make practical changes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behaviors. Zero waste fashion design has emerg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reduce or eliminate fabric waste through planning in advance. Following this trend, this study chose Korean traditional string Bojagi as a design motif due to its unique sculptural beauty, which minimizes fabric waste as a method of zero waste fashion desig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ve features of string Bojagi and 3 pieces of zero waste fashion design were suggested reflecting these ele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string Bojagi were analyzed as sustainability, inclusiveness and fixedness. Second, the formative features of string Bojagi were analyzed as beauty of overlapping, of variableness, of lines and surfaces. Third, as a result of applying Korean traditional string Bojagi to fashion design, we were able to propose a sustainable zero waste fashion design method that significantly reduces fabric waste and simplifies the existing production process, utilizing square pattern with strings. Fourth, when configuring the pattern based on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Bojagi and utilizing the string, a variety of silhouettes and decorative elements such as shirring and drape were added to the simple square form and emphasized the sculptural aesthetic of a curved human body.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beauty of variableness could be created when applying various numbers and positions of strings with fixedness. Sixth, when applying the color characteristics to the outer, lining, and strings, it was confirmed that the beauty of color, such as brightness contrast and saturation contrast, is emphasized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tility with a reversible design. Seventh, when applying the strings to the clothes, it was possible to emphasize various formative beauty of lines and overlapped surfaces and to create new lines and surfaces by dragging them. Furthermore, if researches are conducted to find various motives and techniques from cultural heritage of our ancestors, who have led a free-of-waste culture treating nature and human beings as one, there is a potential with unlimited expansion.

Key words : zero waste fashion design, Bojagi, sustainable design, Korean beauty

